

김호기의 '사회의 눈'



1944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

예순 아홉 돌을 맞는 광복절이다. 오늘 광복절은 의미가 남다르다. 내년 2015년 8월 15일까지는 광복 70주년으로 가는 1년이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은 10년 단위로 치러지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놓인 자리 때문이다.

해방, 정부 수립, 분단, 한국전쟁, 박정희 정권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시대, 광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열린 민주화시대가 지난 70년의 역사였다. 1876년 개항에서 1945년까지가 나라를 상실해갔던 시간이려면, 1945년 해방부터 현재까지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다.

역사는 반복 속에 전진하는 나선형을 이룬다. 이 나선형의 역사에는 분기점들이 존재한다. 1945년 이후의 세계를 흔히 전후(戰後, post-war) 시대라 부른다. 여기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44년은 전후 시대로 가는 길에 놓인 해였다.

서유럽에선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반격이 강화됐고, 아시아에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됐다. 1943년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에 이어 이 해에는

국제연합(UN) 창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편 1944년 국내에선 일본 패망과 조국 광복을 대비하기 위해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동맹이 창립됐고, 해외에선 김구가 주도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1945년 전후 체제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나아가던 해가 바로 1944년이었다.

전후 시대에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가 보여온 풍경은 사뭇 다르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의 전후 시대를 이끈 동력은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였다. 이른바 '영광의 30년'과 '고뇌의 30년'이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가 열리고 있다.

비서구사회의 전후 시대를 견인한 힘은 발전주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의 도전과 실험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국(NICs)이 등장했고, 21세기를 장기적으로 주도할 브릭스(BRICs)의 영향력이 커져 왔다.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의 불평등이 외려 증가했고, 인구·식량·에너지·기후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대면하게 됐다.

광복 70주년으로 가는 2014년 한국사회의 현재는 이런 세계사적 흐름이 강제하는 구조적 조건 아래 놓여 있다. 비서구사회에서 출발해 추격 산업화와 추격 민주화를 통해 서구적 선진사회에 근접했다고 자부해 왔지만, 민주화 시대의 황혼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할지 서성이고 망설이고 있다.

더없는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는 근대화의 어두운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일깨워줬다.

선진화·경제민주화·복지국가 등 담론들이 무성하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비정규직노동자·고령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를 해결할 국가능력과 정치역량에 대해 국민 다수는 회의하고, 그 결과 집합적 무기력이 우리 사회를 감돌고 있다.

역사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

는 분기점이 존재한다. 다른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트는 지점이 분기점이다. 그 지점을 지난 이후 일련의 집합행위가 누적되면서 사회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역사적 분기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돌아보면 전보의 복지국가 시대와 보수의 신자유주의 시대로 이어진 전후 시대가 마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택이다. 70년에 가까운 지난 시간은 나라 세우기 시대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구체화된 나라 세우기에 담긴 빛과 그늘이 뚜렷해진 현재, 그 명암을 제대로 바라볼 때가 됐다. 지나온 시간을 객관적으로,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선 우리 생각과 상상력을 구속해온 이념과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미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내년 광복절까지 광복 70주년으로 가는 1년을 떠올리며 풀어보는 희망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종교칼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김연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본당 주임신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정이 크게 상하고 얼굴 보는 것도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미운 감정으로도 아내는 남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은 풀립니다. 의지에 따라 감정이 조절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지에 종속됩니다. 즉 감정은 의지를 따라다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타고난 것이며, 생리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이라 베가 아프면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성입니다. 이 이성 안에는 진, 선, 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양심을 통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을 지향

하라는 양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호르몬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명령에 의해 그 악을 먹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만큼 나도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들이 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느님도 인간이 그분의 은총을 일축해버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느님께서 너희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그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한센병과

그 후유증에 따른 냄새는 좋아할 수 없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한센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선행을 행하라"는 계명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 계명이 우리의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6살 소년에게, "자, 가서 한센인 할아버지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오렴"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요구하는 선행을 하는 것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감정이 바로 생기지 않을 때에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작문을 배우고, 요리하는 것을 통해 요리를 배우고, 친절을 실천함으로써 친절함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의지는 감정을 이깁니다. 사랑합니다.

기고

인사 편향·지역 불균형 바로 잡아야 -이정현 의원에 바란다



김동철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늦게나마 이정현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 "호남정서를 대변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마음이 되겠다."고 밝힌 당선 소감처럼, 여당의 불모지에서 임기동안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당선 이후 보여주고 있는 이 의원의 언행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호남 국회의원을 편한 세상만 다 갖다"며 후수를 두더니, "예산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는지 경쟁해보자"는 말은 듣기에 거북하다. 이 의원의 발언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

차제에 이정현 의원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정권 '실세'의 힘을 인사탕평에 쏟아 달라. 박근혜 정권 출범 첫 해, 정치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설문조사 결과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이 단행한 인사에서 국무총리와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제정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들은 모두 영남이었다. 초대 내각의 장관 중 호남

출신은 고작 1명이었다. 임기 1년 반이 되도록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국무총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영남일색이다.

둘째,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으로 보여 달라. 인사는 예산이든 현 정권에서 호남이 철저히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것부터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예산확보에 대한 발상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들먹였던 호남 '예산폭탄론'이 당선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 새 정치연합 호남지역 의원들 모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약속한 대로 '폭탄' 수준의 국비가 호남에 집중 투자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터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당연한 주장이다. 때문에 그것은 정권의 시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다. 국비 1억원을 따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이 의원이 더 잘 알 것이다. 해당부처 장·차관에게 수차례 당부하고, 혼자 힘이 부칠 때면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아쉬운 소리 해 가며 부탁하기 일쑤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조차 예산부처의 사무관들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야 하는 판국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 예산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때문에 지역사랑에 대한 이 의원의 총정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이 의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크다. 그의 주장대로 예산확보 경쟁 또한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아름다운 제안이다.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정착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지역 간 상생 구도는 없을 것이다. 이 의원이 진정한 호남을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편향 인사와 지역 불균형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폭주족 8·15 광란의 질주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올해로 8·15 광복절은 69회를 맞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화상은 3·1절과 8·15 광복절을 폭주족의 기념일 정도로 여겨 전국적으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교황의 방한의 기쁨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이 맞물려 더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맘때쯤이면 경찰은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그러나 폭주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차량

을 에워싸고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역주행하는 등 그야말로 위험천만하며 야질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자신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몰리는 행위 대신에 국도 순례의 한 장면처럼, 오토바이 행렬대를 조성해서 일정거리를 질서 정연하게 왕

복운행 해보는 퍼포먼스는 어떨까? 다행히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착한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오토바이 연합회와 경찰청이 MOU체결 이후 자체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번 광복절에는 조용히 그 침된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社說

시의회 조직개편안 '발목잡기' 더는 안 된다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거부로 한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시의 핵심 업무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정의 가장 기본인 정기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는 물론 9월 국감 준비 등 지역현안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의 지난달 29일 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가 요청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광주시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개편안이 출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시의회 요구에 따라 일부 사안을 수정했지만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통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윤장현 시장이 민선 6기 최대 가치로 내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

해 필수적인 조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시장이 일단 두 조직을 운영하고, 이후에도 통합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여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를 거세지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앞서 가결하기로 결정했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의원들의 이해득실과 연계해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음달까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자칫 행정 마비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몫은 고소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정의 한 축이다.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길들이기' 내지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진정한 '시민의 발' 돼야

'월점에서 재검토'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 지하철 2호선의 건설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술자문화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새 노선 추진에 찬성했다. 이젠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노선 설정이 중요하게 됐다.

우선 2023년까지 1조7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이 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6살 소년에게, "자, 가서 한센인 할아버지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오렴"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요구하는 선행을 하는 것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면 현명한 공법 선택이 필수적이다. 현재 저심도 방식 외에도 고가방식인 경량전철, 노면전차(트램),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 최선의 방

식을 찾아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인 노선 설정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의 1호선은 시청과 버스터미널 등 중요 지점을 연결하지 못해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2호선 만큼은 최대한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광주 기아-팬피언스 필드' 야구장 연결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시는 2호선 완공 후 광주역~야구장~버스터미널~시청~월드컵 경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7km의 지선(支線)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일이 버겁다.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광주시의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

아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하철 2호선 건설 방침은 정해졌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2호선이 시민들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극장에서 개봉된 다큐멘터리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1995)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육성을 담은 '낮은 목소리'는 필름을 후원할 100피트 화일을 모집해 촬영했다.

2년 후 개봉된 '낮은 목소리2'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영화는 고(故) 강덕경 할머니의 장례식으로 시작한다. 소화교에 다니는 소녀 강덕경은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위안부가 됐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온 할머니는 1992년 처음 열린 일본 대사관

많은 관객들이 바주기를 저 세상에 가서도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다큐에서 강 할머니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 한장 한장에 담긴 이야기는 아프고 아련하다. 강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은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가 기획전-지치 않는 꽃'(9월14일까지)은 기획

역해야할 전시다. 박재동, 이현세, 조관제, 고정일, 김신, 김신 등 만화가 15명 앞 '수요집회'에서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혔다.

이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운동에 나선 강 할머니는 1995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다. 두번째 시리즈는 '낮은 목소리'로 변 감독과 인연을 맺어온 할머니가 "죽기 전에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다큐 한편을 더 찍자"고 제안해 촬영이 시작됐다.

영화 속에서 할머니는 말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강하게 되고 더 오래 살 것이다." "이 영화를

지지 않는 꽃

은 고단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이야기를 만화에 담았다.

전시작은 지난 1월 세계적인 만화축제인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들이다. 당시 이 작품들은 일본인들의 취소 탄원서로 전시가 무산될 뻔 했었다.

'지지 않는 꽃' 전시작들은 책으로도 만날 수 있다. '시선', '도라지꽃', '나비의 노래' 3권이 출간됐다. 오늘은 광복절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광고매체국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